

교회 3대 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주간충현

교회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
나이다(시 18:1)"

이주일의 말씀

"인자의 온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다"
(마가복음 10장45절)

발행인 / 이종윤,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소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주간충현」 신문사 소식관 112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Published by Choong Hyun Presbyterian Church, Seoul, Korea. 대표전화 552-8200, 팩시밀리 552-2925, 편집국 직통전화 554-1615

오늘 교회설립 제36주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전진

우리교회는 오늘(주일)로서 설립 36주년을 맞는다.

1953년 9월6일(첫주) 서울시내 인현동에서 18명의 성도가 첫예배를 드림으로 충현교회가 설립되었고 36년동안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크게 부흥되었다.

교회연혁에 의하면 1953년 9월12일에 김창인전도사가 취임했으며, 동년 11월1일 유년·장년주일학교가 개교되고, 11월24일엔 중·고등학생회가 조직되었다.

12월19일 제직회가 조직되었으며, 1954년 1월17일 여전도회가 창립되었다. 동년 5월9일 당회가 조직되었고, 1962년 12월16일 우리교회 표어로 「천국일꾼을 키우자」로 정하고 성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편 18편1절)로 결정했다.

1964년 1월13일 국내 최초로 겨울어린이 성경학교를 개교했으며 1968년 11월24일 해외복음선교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1972년 1월1일 상설지도자 양성부 신설, 72년 4월30일 교회기관지 「충현」 창간, 73년 7월29일 충현성경학원 설립, 1977년 4월3일 주일낮예배 4부예배로 실시되었다.

1978년 9월3일 교회설립 제2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고, 1987년 12월28일 김창인목사 원로목사 추대 감사예배를 드렸다.

1988년 4월21일(목) 오후7시30분 이종윤위임목사 위임예배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이종윤위임목사는 "충현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는 이시대의 기독교회의 마지막 남은 그릇처럼 사도적인 신앙고백 위에 성경적인 생활원리를 강조하고 신행일치의 모본을 강조하므로 20세기 교회의 모본이 되어보려는 영광스런 자리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것임"을 시사했다.

1988년 6월6일~7월15일까지 40일간 영적각성·예수께 헌신을 다짐하는 흥해작전(새벽기도회)을 실시했으며, 동년 6월1일부터 수요일예배가 2부(오전11시, 오후7시)로 실시되었다.

또 5월19~6월9일까지 충현부부대학이 개설되었고, 8월7일 주일부터 3부예배시에 외국인들을 위한 동시통역예배(영어·일어)가 실시되었다.

8월28일 영어예배가 개설되었으며, 충현성경암송 기록이 8월15일 새벽부터 약 3천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참가하여 완전제작 헌정했다.

동년 9월부터 충현 제자훈련원 개원, 9월2-3일 이틀간 장애자들이 바자회, 9월8일 충현 살림대학(경로), 개교, 9월10일 사랑부 개교예배, 9월11일 소식관(김창인원로목사 아호) 봉헌예배, 10월8일 예배다부(농아)

개교예배, 그리고 8월24일부터 일주일간 여러교작전이 열렸다.

1988년 12월20일 오후7시 8년 8개월 12일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새 예배당 봉헌이 있었다.

1989년 2월13일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이 개설되어 국내 초교과 교역자 1,70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

1989년 3월4일 교회사상 처음으로 주간지 신문 「주간충현」이 발행되었다.

동년 5월12일 전성도의 체육행사인 「충현올림픽」이 진행되었으며, 6월6일부터 「시온성대행진」이 15일간 개최되었다.

이제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가 오늘부터 진행될 것이며, 계속해서 충현제자훈련, 전국 목회자세미나 제3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다.

2천년대의 충현교회는 세계가 우리의 교구로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의 모임으로, 그리고 선포적 사명, 봉사적 사명, 친교적 사명, 교육적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한다.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사

충현교회 설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국내 외 흩어져 있는 충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이 날을 맞이하여 지난 36년을 회상하여 고마운 전통과 자랑스런 신앙 유산들을 정리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천년대를 기대와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슬한 자랑과 영광의 탐을 쌓기 위한 성도들의 눈물겨운 기도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여 충현은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더욱더 전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
사랑의 공동체로 화육
진리의 공동체로 계속 세움을!”

충현의 가족들은 이미 세계의 주목을 받는 신앙의 금자탑을 가진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이제부터의 충현은 머리되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공동체로 성장해야 할 것이며 사랑의 공동체로 화육해야 할 것이고 진리의 공동체로 계속



세움을 입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충현은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미래 세계를 조명하고 성령의 은사를 실천함으로 현재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진리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충격을 사랑과 진리로 승화시킬 줄

알고 내일의 비전을 감격과 열심으로 도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연관이 되어왔던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충현인으로서 이같은 사명을 다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념사를 가름합니다.

위임목사 이종윤



▲ 영·호남 수재지구에 본교회는 구호품 및 지원금을 전달했다.

▲ 영어예배개설 제1주년을 맞아 축하 기념예배가 지난주일 갈릴리움에서 있었다.

수재구호품·지원금 전달
구제위원회 지난주간

구제위원회(위원장: 오진국장로)는 지난 8월25일 수재구호품 및 지원금을 영남·호남 지역 교회에 전달했다.

지난 7월 집중폭우와 홍수로 인해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교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교회당 및 사택이 전파(全破)되고, 전기누전, 집기, 비품 등이 침수되어 성도들이 큰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되었다.

이에 본교회는 지난 8월6일 구제헌금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을 사전답사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구제키로 결정했다.

교회당이 완전 파손된 곳엔 1백만원의 지원금을, 반파된 곳에는 50만원, 그리고 침수된 교회엔 30만원씩 지원하고, 성경·찬송가 200권씩 구입하여 10개교회에 50권, 30권, 10권씩 전달했다.

성도들이 보내온 의류도(약 1백 박스 분량) 함께 호남지역엔 송기홍장로와 김용도집사가, 영남지역엔 김경철장로, 김여순집사, 박상준집사가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했다.

이번 지원금은 8백17만원이었다.

영어예배 개설 제1주년
기념 감사예배드려

본교회는 영어예배 개설 제1주년을 맞아

지난 8월27일 주일 오전9시 갈릴리움에서 기념감사예배를 드리고, 이날 참석한 모든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하 리셉션도 가졌다.

현재 영어예배 지도교역자는 마일수목사이며, 정하우장로 등 여러 스태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제36주년 기념행사 준비위

교회설립 제36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회의 ▲교구별 찬양경연대회(9월3일(주일) 오후 5시 예배위원회실/ 본당202호)

▲성경경연대회(9월3일(주일) 오후3시30분 주간충현 편집국/ 소식관 112호)

이종운 위임목사의 수요예배 성경강해시리즈⑨



본문 / 요 6장 10절 ~ 15절

모든 삶의 행동원리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극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바른 반응을 보일 것이지만 불완전한 지식이나 한정적인 지식을 가진 자는 바른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극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할 때는 바른 반응을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과 바르지 못한 태도로 옳지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 불완전한 지식의 위험

인생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한 가지는 일이 성공할 때에 오는 위험이요, 다른 한 가지는 성공하지 못한 자에게 오는 밖으로부터의 환난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후 유대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와 메시아로 인식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본 것, 왕(메시아)으로 본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사장 이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 불완전한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불완전한 지식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왕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실 것을 그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0:45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목적으로 오셨는데 이들이 부분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니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진리에 대한 지식면에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의 원대로 주셨습니다(11절).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복을 받으니까. 인격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습관적인 기도를 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음식에 동참한 자들과 음식을 위해 준비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으

자극과 반응 (Stimulus and Response)

로 나타나십니다. 잔디에 사람들을 앉히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차례대로 앉히십니다.

헬라어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스모스’의 뜻은 우주라는 뜻인데 조화와 질서가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조화와 질서를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

후일에 군중들이 더 많은 떡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떠먹던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떡을 더 줄줄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먹던 바로 그 백성들이 어느 사이에 등을 돌려 대적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아우성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아” 이것이 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이용하자는 반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로마의 압제 하에서 독립을 할 수 없을까, 어떻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볼까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생활과 문화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교회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목적으로 위하여 오용, 남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사하던 신학교에 집을 하나 짓게 되어 입찰을

부분적인 지식은 어려움을 초래 정확한 지식 가져야

해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합니다.

로마서 6:4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함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씀했고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했습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복이나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기독교인인 것은 틀림없지만 발하나 떼어놓지 못하는 어린아기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서로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장로님이 찾아 오셔서 명함을 내미는데 건설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내가 장로님께 신학교를 지어 이(利)를 보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기시면 정성을 다해서 지어놓겠습니다.”라는 말씀에 어찌나 마음이 시원하고 감사한지 다른 회사 입찰할 것도 없이 교수회를 열어 안심하고 맡겼습니다. 집이 다 지어지고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천정에서 우둑우둑 소리가 납니다. 천정이 내려앉고 오물이 떨어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방마다 그 지경이었습니다.

검사자가 준공검사를 나왔는데 전기줄의 굵기가 설계도에 비해 너무 가는 선을 썼으니 다 같아야 합니다. 건설회사 사장님인 장로님께서 교회를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제일 잘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말이 전부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니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식의 한계성을 늘 느끼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지식은 자기에겐 무익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현저하게 손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적인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겨서도 안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

나 부분적인 지식은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소경들이 코끼리를 설명합니다. 한 소경이 코끼리의 다리를 안아 보고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른 소경은 코끼리의 허리부분을 만져보고 담배곽 같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답이 다 맞습니다. 분명히 코끼리를 보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답은 다 틀렸습니다. 불완전한 지식인 까닭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떡을 먹은 ‘오천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어야 할텐데 그들의 지식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인들에게 너무나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를 회복해야 하는 민족적인 문제로 고심하고 있던 터라 기적의 메시아가 출현하여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보이시자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2. 두 종류의 반응

떡을 먹은 백성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떡을 얻어먹은 백성들이 다 고상한 행동만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줄 수 있는 한에는 협력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기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실 수 있는 한, 자기들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돕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말하기는 쉬우나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축구시합을 할 때에 중계방송을 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나란히 앉아 중계를 하는데 “아, 저런 때는 센타포드가 왼쪽으로 가야하고 레프트 윙은 이렇게 하고 헤딩은 저렇게 해야 하는데 실수를 했군요, 수비가 약하군요.”

우리나라가 이길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괜찮는데 한참 지고 있는데 해설자는 선수들이 경기를 점점 못한다고 중계합니다. 그래서 늘 느끼는 것은 해설하는 사람 열한 명만 코트에 집어 넣으면 월드컵대회 나가도 우승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기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이라’ 말하기는 쉽지만 아직도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장사지 내지 못해서 욕심과 정욕과 더러운 것이 한없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떡을 얻어 먹는 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지지했으나 떡의 공급이 중단되

여전도회 특강안내

주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
일시/ 1989년9월8일(금) 오전10시30분
장소/ 갈릴리홀
강사/ 최재분(신앙세계 발행인)
※여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전도회 협의회

충현살림경로대학 21일, 제2학기 개강

충현살림 경로대학 제2학기 개강이 오는 21일 갈릴리홀에서 있게 된다.

제2학기 교육기간은 9월21일~11월23일까지 10주이며, 입학자격은 만 60세 이상 남녀로 오는 17일까지 입학원서(소정양식) 증명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서약서, 등록금 1만원을 내면 입학이 허락된다.

“진리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충현제자훈련 교역자·장로 첫번째 교육

89년도 충현제자훈련 제1차 교역자·장로 팀의 교육훈련이 지난 8월 28-29일 충현기도원(경기도 광주 소재)에서 실시되었다.

교역자 37명, 장로(협동장로 포함) 66명 등 103명이 참가한 동 훈련은 28일 오후 6시30분 교회에 집합하여 45분동안 저녁식사, 명찰·훈련복 지급, 15분동안 인원점검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7시40분 버스에 승차하여 8시30분에 기도원 도착, 20분동안 숙소배정과 정리정돈의 시간을 가졌다.

8시50분부터 20분동안 찬양시간을, 9시10분부터 저녁집회를 김학진목사 설교로 진행했다.

김목사는 “영적 각성”이란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혹함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매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9시50분부터는 방별기도회 및 친교의 시간을 갖고 11시10분 첫날 취침시간을 가졌다.

둘째날 오전 5시 기상하여 세면을 마친 뒤 5시20분부터 20분간 김광석목사 인도의 새벽기도회를 가졌다. 김목사는 창세기 2장 15~17절 본문을 이용하여 “철저한 회개 없이는 큰 능력을 받을 수 없다”고 각성을 촉구했다.

5시40분부터 기도원 동산에서 40분 동안 산상개인기도의 시간을 갖고, 6시20분부터 20분간 김정연집사 지휘의 체조 및 구보의 시간을 가졌다.

오전 7시부터 1시간 동안 아침식사, 8시부터 10분간 찬양, 8시10분부터 김해규목사의 “주님과의 영적 교제”라는 제목의 강의①이 30분간 진행되었다.

김목사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고 전제하고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며, 공부해야 하고, 묵상과 암송해야 함을” 제인식시켰다.

9시30분부터 강의② 송태근목사의 “그리스도를 닮는 삶”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또 11시부터 강의③ 현신과 섬김에 대한 김성운목사의 강의,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40분간 공동체훈련이 있었다.

오후 1시50분부터 강의④ 김영규목사의 ‘저상명령과 중언’이란 제목의 강의, 그리고 찬양과, 기념사진촬영이 있는 뒤, 위임목사의 “2천년대의 충현교회”라는 제목의 특별강의가 있었다.

이종운위임목사는 “섬기는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앞으로 10년 후의 한국교회상을 8가지 항목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인용해 보면 제8항 내용으로 “교회의 영적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이며, 서구교회와 이미 경험한 세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롯한 혼합주의 운동, 귀종교와의 대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특히 토착화 신학을 기초로 한 민족신앙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교회들이 증가할 것”을 우려

했다. 또 제8항에서 “교회는 역사적 도피성향에서 벗어나고 좀더 적극적 사회참여 또는 발언을 하게 되나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 목소리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못될 것이다. 경직된 근본주의 성향과 비이성적 열광주의, 오만한 지성주의, 교활한 위선적 태도, 그리고 지나친 현실추구형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이목사는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충현교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제 충현교회가 2천년대에 가서 정신적



▲ 교역자·장로 103명이 참석한 충현제자훈련 제1차 교육모습.

아편으로서가 아닌 부패한 사회의 소금으로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명실상부한 생명운동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또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충현교회, 진리의 공동체로서의 충현교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이다.”(강의전문 3면에 게재)

89 충현 제자훈련 논단

2천년대의 충현교회 —섬기는 공동체—

“주어진 제목을 분석해 보면 2천년대가 우리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충현교회의 모습과 성장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2천년대는 아주 먼 훗날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나 실제로는 10년 후를 말한다. 내일 일을 예견할 수 없는 인생들이 10년 후를 말한다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어쩌면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은 마치 불신앙적 행위같이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닫도록 가르쳐주셨다. (마 24:32-33) 이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므로 신앙적 유익이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래학(Futurology)에 대한 연구가 세계 도처에서 시작되었다. 1967년 Herman Kahn과 Anthony Wiener가 30년 앞을 전망하면서 “The year 2000”라는 책을 발표하므로 서기 2천년이라는 말은 미래학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 왔다. 역사 철학자요 신학자인 Augustine에 의하면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에 와있고 미래는 기대(Expectation)로 현재에 와있으므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라”고 했다. 즉 과거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가 현재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대한 연구와 이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현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것에 될 것이다.

1980년 Alvin Toffler는 “제3의 물결”을 발표하였다. 이 책은 천만부 이상 판매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새 문명(A. new civilization)이 출현하고 있다고 보고 새 문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바로 이 신 문명이 제3의 물결이다. (The third wave) 제1의 물결은 1만년 전 인간이 농업을 시작하면서 사회가 변혁된 것을 의미하고 이는 수천년 동안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2의 물결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개리킨다. 이제 제3의 물결은 우리들의 보통 상식으로 잘 알 수 없는 양자전자공학, 원자 핵물리학, 우주 과학 등 그리고

매우 미소한 단위를 문제삼고 출발한다.

2천년대를 목전에 두고 미래학자들 중에도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비관적 입장을 말하는 이들도 있다. 컴퓨터나 로봇이 인간의 수고를 대신해 줄 것이다. 통신 위성이 지구촌을 더욱 가깝게 만들 것이다. 제2의 녹색혁명을 통해 먹을 것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러나 비관적 입장에 서있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인간화, 가정붕괴-핵가족을 벗어나 자녀없는 다양한 가족을 예견하는 이도 있다. 가치관의 전도, 실업자 홍수, 유전공학의 도전으로 생명의 가치전락, 자원고갈, 환경오염, 기상이변, 생태계파괴, 핵무기위협 등 무서운 얘기들이 너무 많다.

— 이와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예견되는 2천년대에 한국 교회모습은 어떠할까?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는 한국 근대화에 큰 역할을 감당했다. 교회가 없었다면 한국

“우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한을 안에 몰아넣어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을 확인해야 한다”

근대화의 역사는 출발조차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기독교인의 수는 비록 1%도 되지 않았지만 창조적 소수로서 새로운 출애굽 역사와 새 문화의 생활양식 그리고 민족, 애국사상과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 1986년 12월에 실시한 전국 표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수가 21%, 천주교가 31%로 나타났다. 대체로 한국교회는 인구의 4/1 즉 일천만 성도를 넘고 있다. 십자가를 세운 교회 건물도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

— 이와같은 교회들이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1) 예수 재림 기대가 더욱 커질 것이다. (하나님만 하시는 러덜이지만) 기독교 신자, 목회자들이 2천년대가 종말의 때라고 외친다.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배교론 세대가 아니고 화가 난 세대들이므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더욱 타락할 것이다. 성도들은 주일성수를

외면, 등록하지 않고 헌금, 심방, 봉사와 상관 없이 예배만 참석하는 방문객 교인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개인주의적 자유방임형 신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3) 목회자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제사장이나 왕같은 고상한 자리에서 대접받고 호명하는 목사가 아니다. 초인적 마력을 가진 스타와 같은 설교가나 방문 목회를 통해 제면교인이 되어 인정의 줄에 얹어매어 놓은 순정과교인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철저한 종의도를 실천하지 못하는 목사는 낙오자가 될 것이며 성도와의 인격적 교제와 더불어 고민하는 목회자상을 더욱 요청하게 될 것이다.

(4) 목회자의 교육수준도 지금은(대학4년, 신학교3년) 7년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가 적어도 전공을 갖는 특수목회자로 나타날 것이다. 병원의 진료과목이 있듯이 음식점의 특별전문 요리점이 있듯이 개교회마다 특유의 목회(Speciality)가 있게 될 것이

다. (5) 평신도의 수준도 향상되어 지도자로서 활동범위와 심도가 확대될 것이며 특히 다양한 성경공부 방법 개발로 교회내 사명자가 많이 나타나 아세아선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6) 그러나 교회의 양적 성장 속도는 둔화될 것이며 서구 교회가 이미 경험한 세속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에큐메니칼운동을 비롯한 혼합주의 운동, 타종교와의 대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특히 토착화 신학을 기초로 한 민족신앙까지 수용할 수 있는 교회들이 증가할 것이다.

(7) 큰 것은 때를 살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탈대형 교회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에따라 소규모 개척 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파영 배출되는 신학교 졸업생들의 수와 비례하여 출현해 될 것이다.

(8) 교회는 역사적 도피성향에서 벗어나고

《4면으로 계속》

<→ 3면에서 넘어와 이어짐>

좀더 적극적인 사회참여 또는 발언을 하게 되나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 목소리는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못될 것이다. 경직된 근본주의 성향과 비이성적 열광주의, 오만한 지성주의, 교활한 위선적 태도, 그리고 지나친 현실주의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이 순수논쟁을 하고 있는 한 교파 분열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며 진보주의자들은 신학의 개방성 까닭에 교파의 의미를 상실한채, 그러면서도 지적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다.

一.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충현교회

이제 충현교회가 2천년대에 가서 정신적 아편으로서가 아닌 부패한 사회의 소금으로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어 명실상부한 생명운동의 산실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몇가지를 겸허한 마음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구원의 복음 속에 담겨진 사도적 사명과 예언자적 비판의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 즉 거듭난 실존으로 전환하여 새 역사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감격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공동체는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의 모임이다.

(2) 양적 팽창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을

속히 촉진시켜 교회의 타락과 질적 타락을 방지하고 성경적 바른 해석과 건전한 신학체계를 갖고, 구부러진 교회상을 새롭게 정립하여 바른 교회상 정립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1) 선포적 사명(Kerygma), 2) 봉사적 사명(Diakonia), 3) 친교적 사명(Koinonia), 4) 교육적 사명(Didache)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루어나간다.

(3) 물질적 풍요와 사치성 열락이 비례하여 교회 내에서도 크게 번져나갈 전망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경적 절제사상을 철저히 인식하고 적용하지 않는 한 미래교회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4) 지구촌(Global village, 1964년 토론토 대학 M. McLuhan 교수의 'Understanding Medi'에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으로서의 세계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구촌이라는 말은 6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 알려져 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는 이웃이 되었고 '우리'라는 개념하에 더욱 가까와지고 있다. 한국어의 '우리'는 일인칭 복수형이지만 그 어원을 따져보면 땅을 파고 사는 곳을 움이라 했고 그 위에 지붕을 씌우면 우리가 되었다. 같은 마당에서 사는 것을 마을이라 하고 구역을 넓히면 고을이 되며 그보다 넓은 곳을 서울이라 불렀고 큰 울을 한울이라 했다. 가깝게 사는 이웃을 한울 안에 산다하여 오늘날 아시아가 한우리가 되었고 세계가 한우리 안에 살게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한울 안에 몰아넣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확인해야 한다. 이웃을 우리로 부르는 공동체 의식은 일체감, 통일성, 전체성, 그리

고 자발성이 그 특징이다. 더불어 살고 일하고 피차 편안함을 느끼며 충격없이 서로 친숙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교회설립 제36주년에 드리는 기도”

주여!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 주여! 이 제단을 용광로로 삼으시사 뜨거운 성령 불이 활활타게 도우시사 때론고 추악한 심령 새롭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제단을 생명샘이 되게하시라 시원한 생수가 사시장철 솟게하시라 갈급한 심령들에 생기를 부으소서.
- 주여! 이 제단을 구원선이 되게하시라 파도치는 세상물결 험하게 나가면서 죄악에 떠내려가는 생명들을 구하소서.
- 주여! 이 제단을 기도의 집되게 하시라 주야로 기도의 불 꺼지지 않게하시라 이백성 간구 소리 이루어 주옵소서.
- 주여! 이 제단을 연단의 집 삼으시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권능으로 임하시라 실력있는 천국일꾼 양성하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사랑의 집 삼으시사 훈훈한 사랑의 향기 사방에 풍기면서 삭막한 이 사회를 따스롭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작은 천국 삼으시사 천국백성 자격자를 끊임없이 훈련하여 천국이 어떠한가를 몸소 보여주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선교본부 삼으시사 실력있는 천국일꾼 수많은 길라배로 온세상 만민들에 복음전파 하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축복의 집 삼으시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누구나 바라보아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위로의 집 삼으시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피곤한 영혼들에게 새힘을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장자교회 삼으시사 이땅의 교회들에 모범을 보이면서 새롭게 하옵소서. 발전하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제단을 찬양의 집 삼으시사 찬사가 화답하는 찬송소리 그침없이 듣는 자, 부르는 자 은혜롭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제단을 진리의 제단 삼으시사 진리의 종들로써 진리로 무장시켜 진리가 무엇인가를 만민에게 전하소서.
- 주여! 이 제단을 민족제단 삼으시사 민족의 지도자가 민족 위해 기도할 때 이 민족 앞길 위에 축복을 내리소서.
- 주여! 이 제단을 변화의 제단 삼으시사 아무런 흠악한 죄도 물로 씻고 불로 태워 눈보다 더 정결한 천국백성 만드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은혜의 집 삼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슬같이 듬뿍내려 누구나 들어오도 은혜받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자비의 집 삼으시사 가난한 소외된 자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신부의 집 삼으시사 주님맞신부들이 몸과 마음 단장하여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마땅하게 하옵소서.
- 주여! 이 성전을 현대민주 삼으시사 이 세상 막날 불의 심판 임하실 때 택하신 주의 백성 구하게 하옵소서.

박철구(8교구, 집사)

구역예배를 위한

충천다락방

1989년 9월 8일(금)

교구위원회 제공

제36과 영적 생활의 성장을 힘쓰라.

성경: 뱀전 2:1-3

요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뱀전 2:1)

찬송: 500, 379장

거듭난 자는 영적 생활에서 갓난 아이와 같은 것이니 영적 생활의 성장을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갓난 아이는 자라야 한다. 성장이 멈추면 병이 들었거나 죽은 것이다.

• 영적 생명의 개인적 성장(1-3절)

1. 소극적 방면(1절)

갓난 아이는 지금까지 모태에서 영양을 취하던 방식으로 취하지 않으므로 모태에서 영양을 취하던 태줄을 버리고 입으로 모유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영적인 유아도 지금까지 세상에서 취하던 방식을 다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흡취하여야 한다.

소극적인 면은(태줄을 끊어버림과 같이) 버려야 한다.

1) 모든 악독

악독이란 거듭난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에 쓸모없는 유독한 것이다.

살전 5:22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다. 옛구습을 말한다.

2) 외식

안과 밖이 다른 거짓된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3) 시기

남의 잘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 성도로서 훈련해야 할 성품 중 하나이다.

상대방의(이웃) 잘못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까지 장성해야 한다.

4) 모든 비방하는 말

사실이라도 남을 악평하는 것은 성도의 할 일이 아니다. 악평은 연합을 깨는 지름길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소극적인 면이다.

2. 적극적인 방면(2-3절)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렸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을 취해야 한다.

1)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란 쾌락이 없는 말씀의 것이란 뜻이다. 즉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의 것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아직 구원을 못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궁극적 구원을 말한다. 이 까닭으로 말씀의 것을 늘 먹어야 한다.

2) 활발한 운동이 있어야 한다.

먹기만 하면 비만증에 걸리기 쉽다. 섭취를 한 만큼 칼로리를 사용해야 하듯 말씀의 먹었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활동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 성도의 교제, 전도와 교회 봉사, 이웃을 향한 말씀의 실천 등이다. 그래야만 균형있는 성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함께 생각합시다.

1. 개인적인 신앙 성숙에 있어서 아직 버리지 못한 구습이나, 악독은 무엇인가?
2. 신앙성장을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가?

(경건의 시간, 성경공부, 전도, 봉사, 교제)

■ 공동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대로 자라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끊어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의 것을 사모하는 목마름을 주시고 주께 헌신하는 삶 통해서 균형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